

휴식·예술·힐링... 호텔에서 열리는 '블루 국제아트페어'

25~28일 라마다충장 호텔
전국 갤러리·광주작가들 참여
42개 객실에 2000여 점 전시

호텔 객실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인 '블루 국제아트페어'가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열려 눈길을 끈다. 객실이 미술관 전시장으로 변모,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미적 감수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BLUE'는 각각 Beauty, Luxury, Unique, Elegance의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남·블루아트페어)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라마다충장 호텔에서 블루 국제아트페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블루아트페어 주제는 '휴식, 예술, 힐링'. 블루아트페어 운영위와 부산도스톤협회, 대구도스톤 협회가 주최 및 주관을 하며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광주시 동구, 광주미술 등이 후원을 한다.

박병남 운영위원장은 "기존의 아트페어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렸다면 블루아트페어는 호텔 객실에서 각각의 룸이 하나의 전시실로 변환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섬의 공간인 호텔은 집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준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호텔에서 열리는 블루아트페어는 객실 내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모티프가 있다.

라마다플라자 충장에서 열리는 만큼 객실에서 전변의 전망을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블루아트페어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주 등 주요 문화도시에서 '예술이 삶의 기준이 된다'를 모토로 개최됐다. 미술애호가들에게 현대미술의 현주소와 세계 속 한국 작가들의 위치 등을 조망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블루아트페어는 라마다호텔 5.6.7 층 3개 객실 룸을 활용해 전시가 이뤄진다. 42개 객실이 갤러리부스로 전환되며, 모두 2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의 갤러리와 광주작가들이 참여해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로는 박광구, 김중식, 이종기, 박규환, 김미애, 김강용, 박남철, 김병수, 이영실, 이상필 등이다.

공연장이나 컨벤션센터 화이트홀에서 개최되는 일반적인 아트페어와 달리 호텔아트페어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호텔 객실에 작품이 걸리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아파트 거실에 작품을 걸 경우를 가정해 사이즈 가늠이 가능하다.

민경숙 운영위 이사는 "객실 하나하나를 갤러리로 꾸민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작품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객실의 분위기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전시와 달리 작품이 객실의 다양한 공간에 놓인다는 점도 이색적인 부분"이라며 "침대나 데스크, 티타이블 등 최대한 실내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 개막식은 오는 25일 오후 6시 1층 카페 엘름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광구 작 '넌 사랑하는 마음'

금관악기 풍부한 저음색 '오늘은 클래식'

광주시향 'GSO상설공연' 27일 광주상설마루...고재현 등 출연

유행을 타지 않는 뮤지션과 음악들이 있다. 2006년 비엔나에서 초연된 이후 도쿄, 헬싱키 등을 거친 뮤지컬 '레베카'가 그 일례.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노르드담 드 파리'도 있다. 다채로운 음악적 언어가 주는 감동은 시대를 초월해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이 GSO 광주상설공연 일환으로 '오늘은 클래식'을 오는 27일 오후 5시 광주상설마루(서구 상무시민로3)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뮤지션들의 곡을 브라스 앙상블 구성으로 편곡해 중저역대 금관악기들의 풍부한 저음색을 느낄 수 있다.

뮤지컬 시카고 중 메인 넘버 중 하나인 'All that jazz'로 막을 연다. 극 중 벨마켈리가 부르는 곡으로, 재지한 멜로디와 가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서용일의 해설을 더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맘보'는 1957년 초연된 제롬 로비스의 뮤지컬 웨

스트 사이드 스토리 OST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유주현, 오만석, 테이 등 뮤지컬스타들의 출연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는 레베카 중 'Rebecca'도 레퍼토리에 있다. 뮤지컬 노르드담 드 파리 중에서 '대성당들의 시대'도 올려 퍼질 예정이다. 이밖에 '사랑은 늘 도망가', '미칠 잭슨 매들리', '그대에게' 등 전세대에 사랑받는 곡들로 관객들을 만난다.

베이스트롬본은 전남대 졸업 후 프랑스로 건너가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을 한국인 최초로 졸업한 고재현이 맡는다. 서용일, 이상현은 트롬본을 연주하며 심재영(튜바), 전사무엘(더블베이스), 강윤숙(키보드), 신지용(드럼)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주상설공연 백영경 기획담당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전통 클래식 레퍼토리에서 벗어



고재현 트롬본리스트

나, 뮤지컬 삽입곡이나 전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곡해 준비했다"며 "곡 사이사이 재치있는 해설을 곁들여 지루할 틈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탈리아 토리노 왕립극장 '세비아의 이발사' 영상으로 만나요

2월 7일 ACC극장3

영상으로 만나는 이탈리아 토리노 왕립극장의 공연 실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수요극장 '세비아의 이발사'를 2월 7일 오후 7시 ACC극장3(문화정보원)에서 상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국영방송국(RAI)이 제작한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 조아키노 로시니의 '세비아의 이발사' 토리노 왕립극장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에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녀 옆에 악삭빠른 의사 바르톨로가 있어 고민만 하고 있다. 백작은 오랜 친구이자 이발사 '피가로'에게 로지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피가로는 센스와 기지를 발휘한다. 백작은 바르톨로와 로지나의 결혼을 무산시키고

사랑을 쟁취하는 내용.

로지나 역에 키아라 아마루, 알마비바 백작 역에 안토니오 시라구사가 출연한다. 피가로는 로베르트 데 칸디아가 맡았으며 지휘에 잠파울로 비산티.

한편 ACC는 매일 1·3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ACC 수요극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1일 '피가로의 결혼', 3월 6일 '우리는 친구다'를 비롯해 3월 20일 '국립창극단 귀토', 4월 3일 '국립무용단 목향' 등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과 창극을 넘나드는 장르로 시민들을 만난다.

ACC 김성훈 주무관은 "해의 유수의 작품을 국내에 유통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며 "실제로 만나보기 어려운 공연들도 '실황 영상'을 통해 만나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상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탈리아 국영방송국 RAI '세비아의 이발사' 공연 장면. <ACC 제공>



'고뇌'

의식의 변화와 성장 '평형'

안수경 초대전, 3월 8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심리적 안정은 중요하다. 하루에만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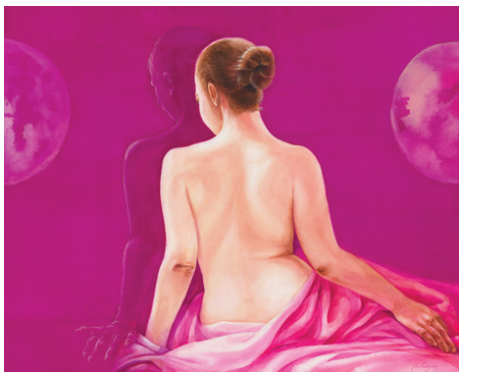
어떤 이들은 그것을 '평형'이라고 말한다. 사전적 의미의 평형은 "사물이나 생각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똑바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평형이라는 말은 이보다 더 깊은 철학적, 심리적 의미까지도 포괄한다.

인간 의식의 변화와 성장 등을 장 피아제의 발달심리에 집목해 '평형'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에서 오는 3월 8일까지 열리는 안수경 작가 초대전 '평형(Equilibrium)'이 그것.

여성의 인체로 형성된 안 작가의 작품은 신비로우면서도 난해하다. 특히 평형에 대한 욕구를 철학적 의미로 기호화하고 여성의 몸을 연체한 것은 심리적, 심미적인 깊은 탐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작업이다.

현직 교사인 안수경 작가는 광주교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교육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작가가 이번 전시에 교육학 이론을 토대로 작품에 조형성을 가미한 것은 그런 이력과 무관치 않다. 특히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나로 엮어 구현한 작품들은 작가가 상징하는 저항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두 개의 자아'는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성의 인체를 조형화한 작품이다. 여성 앞에는 실루엣이 어른거린다.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



'두 개의 자아'

처럼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똑 같은 자태로 앉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루엣의 여성의 왼손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자아는 결코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고뇌'라는 작품이 주는 강렬함도 자못 크다. 머리를 싸매고 웅크리고 앉은 사람 주위로 많은 손들이 감싸안으려는 모습은 원초적인 고뇌보다 더 큰 고뇌를 느끼게 한다. 고뇌보다 더한 주된 여건들은 걱정과 근심, 우울에 갇힌 현대인들의 모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정희남 관장은 "'평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형언어와 인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결합돼 있어 깊은 울림과 사유를 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작가들의 수준높은 다양한 작품을 많이 전시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4회 광주비엔날레 당시의 캐나다 파빌리온 모습.

<이강하 미술관 제공>

광주비엔날레 '광주 파빌리온' 전시 기획자 공모

2월 5일까지 이메일 접수

지난해 펼쳐졌던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파빌리온은 국가 간 문화교류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특히 파빌리온이 밀집된 양림동 일대는 문화 관광의 장소로 부상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광주 파빌리온' 전시 기획자를 공모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광주 파빌리온'은 광주의 역사와 동시대 미술을 접목하고 담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30주년을 기념해 광주 문화예술을 반영한 작품의 전시 기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시 장소는 시립미술관 3-6전시실이며 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박양우 대표는 "올해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광주 예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광주 파빌리온' 기획자를 공모한다"며 "광주 미술의 정체성과 미래의 가능성 등을 조명하고 담아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기획자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광주비엔날레 전시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